

“이력서는 이제 그만”, 창업하는 여성 늘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0평 남짓한 가건물 출입구 앞에 <ART WORLD>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구며 자재들 속에 파묻혀 스티로폼로 된 홍상과 크리스마스용 장식물을 만들고 있는 김희정(28) 씨와 최진남(26) 씨를 만날 수 있다.

“프리랜서란 이런 겁니다”

“얼마전 대구에 있는 모백화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거든요. 크리스마스용 디스플레이였는데 작업이 거의 다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백화점 관계자들이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안심이에요.” 최 씨는 석달 전 처음 프리랜서로 나설 때만 해도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는데 첫 주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고 전한다.

지난해까지 2백화점에서 디스플레이를 한 최 씨와 이 씨가 프리랜서로 나선 것은 개인 사정상 백화점을 그만둔 후 그들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더불어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해주는 직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6개월 정도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다가 아예 프리랜서로 나서는 게 낫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 지난 10월. 처음에는 남자 한사람 더 있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두 사람만 나서게 됐다.

<ART WORLD>는 최 씨와 김 씨가 주문을 따오면 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여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몇 년 안에 취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탓인지 사회나 학교가 자신의 일터를 마련해 주리라는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력서 들고 전전하기 보다는 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나선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3D 업종도 꺼리지 않는다. 고학력 여성인력 인플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도곡동 <Art world>에서 작업 중인 최진남(우) 씨와 김희정(좌) 씨.

고 있기 때문에 애초 마련한 북가좌동의 사무실 보다 이곳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아예 이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한다.

김 씨는 “대학 졸업하고 관련학원에서 1년 넘게 디스플레이 공부를 했어요. 시간과 자금을 남들보다 더 투자한 셈이죠. 그리고 경력도 있고, 우리만 마음 강하게 먹으면 분명히 성과가 있으리라는 계산이 섰죠”라고 전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두사람의 결단에 확신을 가져다 줬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마음만큼 일이 따라주지 않았

레이에 대한 인지도마저 낮아서 여러 업체들이 견적을 제출할 경우 오더를 내리는 쪽에서는 무조건 싸게 먹히는 쪽을 선택한다.

최 씨와 김 씨는 어찌됐든 일감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도죠.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를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두사람의 독심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허드레 일이 많아진다. 일을 주는 쪽과 인간적인 교류도 만들어야 하고 자신들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어붙일 수 있는 입담도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두사람의 ‘공작’이 잘 맞아야 된다.

“진남이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거래처 사람들과 첫 만남을 잘 이끌어내요.” “희정이 언니는 차분해서 제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어 내요.” 두사람의 상반된 성격이 가끔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음과 양의 필요충분 원리를 깨닫게 만든다.

일이 잘 돼야 결혼 생각도 난다고 할만큼 일욕심이 많은 두사람은 인터뷰 도중에도 대전 2백화점에서 걸려온 전화로 마지막 실갱이를 벌였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시작한 놀이방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10단지 내에 있는 <뽀아제놀이방>에서도 젊은 여장부를 만날 수 있다. 13명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이 놀이방의 대표는 홍수화(24) 씨와 백영은(27) 씨다. 굳이 직함을 붙이자면 놀이방 방장이나 사장 정도를 찾을수 있지만 두사람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당부한다. “애들을 대상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들인다는 마음가짐 없이는요.”

홍 씨와 백 씨는 학원 강사로 이력서를 내려 갔다가 ‘차라리 직접 차리지’는데 뜻이 모아져 각자 천만원씩 출자해 2년 전 <뽀아제놀이방>을 냈다. 첫 일년은 두사람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다. 홍 씨는

이 사망감 없이 안된다는 것을 2년간의 산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한다.

놀이방 시작할 때 빌린 돈에 꼬박꼬박 이자를 지불하고 있고 교재비나 놀이기구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아이들이 생각만큼 많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서로 장난이라도 하다가 다치거나 15개월 된 아이를 맡겨 오느 부모를 대할 때도 난처하다.

그럴때면 때려 치우고 직장 생활하며 월급이나 받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직장에도 조직생활의 스트레스가

하나에서 열까지 산경험을 할 일이 너무 많아 힘이 배로 든다. 그렇지만 홍 씨는 보람과 성취감이 직장생활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된다는 데 매력 이 있다고 전한다. 보육아동의 부모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나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금세 기운이 솟는다.

홍 씨는 “대학을 나온 여성들의 일자리가 없지만 직업을 가진 기혼여성은 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놀이방이나 탁아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라며 한껏 매달리는 아이를 안아올린다. <황금희 기자>